


보도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배포 일자	2018. 9. 19.(수)	
배포 부서 및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정책동향연구본부 독도연구센터<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최지현 전문연구원(051-797-4793, 010-3008-6728, 21cjoshua@kmi.re.kr)</li><li>- 김주형 연구원(051-797-4796, 010-8009-7339, jhkim7664@kmi.re.kr)</li></ul></li></ul>	
보도 일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www.kmi.re.kr		

## KMI,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해법 모색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 일 시 : 2018. 9. 20. [목] [13:00-18: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컨퍼런스홀B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양창호)은 9월 20일(목) 오후 1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한다.
-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대륙붕 공동개발협정과 관련한 전 세계의 해양법 및 국제법 전문가와 국내 대륙붕 탐사 관련 유관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관한 해법을 모색한다. 일본 소피아대학교의 카네하라 아츠코(Kanehara Atsuko) 교수, 영국 노팅엄 트렌트 대학교의 데이비드 웅(David M. Ong) 교수, 호주 울릉공대학교의 스튜어트 케이(Stuart Kaye) 교수, 영국 로펌 볼테라 피에타의

대표변호사 로버트 볼테라(Robert G. Volterra) 변호사가 발표자로 참여한다. 이외에 우리나라 대륙붕 탐사와 관련한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희수 박사, 한국석유공사의 임보성 과장이 우리나라 대륙붕 개발의 역사에 대해서 발표한다. 이번 행사를 개최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는 최지현 박사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주요 내용과 그 이행의 역사를 검토하여 협정의 해석상 양국 간 어떠한 쟁점이 있는지를 고찰한다. 이외 국제해양법재판소 전임 사무차장이신 김두영 KMI 석좌연구위원, 현대송 부연구위원, 해양대 임종세 교수,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 김현정 연세대 교수가 토론 및 사회자로 참여한다.

- 이번 심포지움은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세션1에서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기본 내용 및 그 이행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륙붕 탐사의 현황에 대해서 검토한다. 세션2에서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과 관련한 국제법적 쟁점에 대해서 검토한다. 특히 세션2의 첫 번째 발표자인 카네하라 아츠코 교수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을 전달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최종 해양경계획정 이전에 한국과 일본의 대륙붕 중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잠정적 성격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결국 이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은 해양경계획정을 통해서 완료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세션2에서는 대륙붕 권원이 중첩되는 수역에서 관할권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의 원칙과 우리나라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검토하여,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문제의 해법을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에 대한 한일 양국의 공동개발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일본이 이 지역의 천연자원 개발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심포지움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에서 어떠한 탐사활동을 해왔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세션1의 첫 번째 발표자인 최지현 박사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체결되게 된 경위와 그 배경을 살펴보고, 협정문에 따라서 한일 양국이 어떠한 공동의 협력메커니즘 아래에서 대륙붕을 공동개발 하도록 계획되었는지를 검토한다. 더 나아가 협정 체결 이후 두 국가가 어떻게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따른 개발을 실행했는지를 살펴보고, 1차 탐사기간(79년부터 87년까지)과 2차 탐사기간(8년 예정)의 일부 기간(91년부터 94년까지) 동안만 협정이 예정하고 있는 공동개발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발표한다. 또한 일본이 현재 조광권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한다.
  
- 1세션의 두 번째 발표자인 한국석유공사 국내사업팀 임보성 과장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주변 해저 유/가스전 개발 및 탐사 현황, 공동개발구역 내 시추 현황 등을 포함한 탐사 연혁 전반에 대해 언급한다. 한국석유공사는 과거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상의 탐사 절차를 통하여 수집된 탄성과 및 시추공 자료 등에 근거하여 공동개발구역 및 주변 유/가스 부존가능성을 정밀 재평가중이다.
  
- 1세션의 세 번째 발표자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정희수 박사는 한국의 대륙붕 탐사 활동과 관련된 법적 근거와 실제 탐사 활동에 대해서 발표한다. 특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진행하는 대륙붕 탐사 활동은 석유 및 가스의 천연자원 탐사 및 개발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해저 지질

및 지구조를 파악하는 해양과학조사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활동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회수 박사는 동중국해 및 황해 해역에서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실트라인(silt line)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아울러서 중국이 한국과의 중간선에 매우 가까운 지점에 유전을 개발하고 중일 공동개발광구를 설정한 사실을 발표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다.

- 세션2의 첫 번째 발표자인 카네하라 아츠코 교수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에서 당사국의 역할은 개별 사업자들의 개발 행위를 규율 및 관리하는 역할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민간 부분의 사업자들이 주도적으로 개발 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상호 간에 필수적인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양국의 역할이라고하여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과 관련한 당사국의 역할을 상당히 좁게 바라보았다. 또한 1982년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은 - 그 이전의 1958년 대륙붕 협약과 달리 - 대륙붕의 개념과 관련하여 제76조 제1항이 거리 개념을 채택하여 연안국이 무조건 200해리의 대륙붕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왔다는 점과 협약 채택 이후 국제 판례가 중간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과 일본 간에도 결국은 이러한 국제관행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과 제83조 제3항이 말하고 있는 잠정약정이기 때문에 결국 한일 사이에서도 해양경계획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며, 이때 일본은 중간선을 경계획정선으로 주장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였다. 다만 대안적 방안으로 해양경계획정 이후에 새로운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

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 \*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와 제83조는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제74조) 및 대륙붕(제83조)이 상호 중첩할 경우 관련 당사국은 “이해와 상호협력의 정신으로 실질적인 잠정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성격의 잠정약정으로 일컬어 질 수 있는 것이 중첩수역에서 석유 및 가스자원의 개발에 관한 공동개발협정이다.
- \* 제74조 제3항과 제83조 제3항의 원문은 동일하며, 다음과 같다.  
“3. 제1항에 규정된 합의에 이르는 동안, 관련국은 이해와 상호협력의 정신으로 실질적인 잠정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며, 과도적인 기간 동안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약정은 최종적인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세션2 두 번째 발표자인 데이빗 웅 교수는 중첩수역에서 일국의 일방적 행동에 대해서 검토한다. 세계 연안국들은 200해리까지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므로 중첩수역이 상당수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해역에서 이해 당사국인 한 국가가 일방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 및 제83조 제3항이 인정하고 있는 잠정약정, 즉 공동개발협정에 따라서 하거나 아니면 판례가 인정하고 탄성과 탐사 등의 탐사 행위이다.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중 일부의 경우 한 국가만이 개발 행위를 하고 나머지 국가는 이익 배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발 과정을 한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경우가 있다. 혹은 두 국가가 공동으로 개발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호간에 개발에 관한 전망이 다를 경우에는 한 국가만 단독으로 탐사 및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협정 상에서 일방 행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국-일본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사례의 경우는 타방 국가가 협력하지 않을 경우 다른 일방 국가가 일방적으로 탐사 및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을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협약의 해석이 요구되는 까다로운 상황이라는 점을 제시하여 주었다.

□ 세션2 세 번째 발표자인 스튜어트 카예 교수는 우리나라와 일본 사례와 유사한 동티모르-호주의 해양경계확정에 관한 조정 사례에 대해서 발표한다. 이 지역 역시 400해리 미만의 해역으로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국인 호주(한국)에서만 뻗어져 나와 다른 국가인 동티모르(일본) 연안 앞까지 뻗쳐져 있다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사안의 경우 해저 자원 부존이 확인되었고, 실제 바유-운단 유전의 경우 상당양의 원유가 채굴되어 상업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이다. 해양경계확정에 관하여 ‘동티모르-호주 조정위원회’는 대상 해역을 중간선에 기반하여 획정한 뒤에 문제의 초점을 상호간의 석유 및 가스의 이익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두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현재 미개발상태인 그레이터 선라이즈 유전 지대에 관하여 어떠한 형태로 양국이 협력하여 석유를 생산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조정위원회는 양국 사이에서 신뢰회복(confidence building) 절차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하여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이익 배분 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세션2의 마지막 발표자인 볼테라 피에타 변호사는 해양경계확정에 있어서 자원의 존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해양경계확정은 대상 해역을 획정한 뒤에는 보통 3단계 방법론에 따라서 잠정 등거리선 확정-관련사정 고려-반비례성 테스트를 거치는데, 가스 및 석유의 천연자원의 존재가 관련사정으로 명시적으로 고려된 해양경계확정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만 과거 사례의 경우 양국이 상호간에 자원개발 구역을 존중한 경우에 이를 경계확정 과

정에서 고려했던 선례(1982년 튀니지 리비아 경계확정 판례)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문제와 같이 아직 자원의 부존여부가 양국에 의해서 확정되지 않은 사례의 경우에 미래의 해양경계 확정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여부, 일국이 자원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에 그것이 해당 국가에게 불리한 결과로 돌아갈 것인지 여부와 관련한 개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2

## 행사 일정

일 자	시 간	내 용
9월 20일	13:00-13:20	등록
	13:20-13:30	개회사 (양창호 KMI 원장)
	13:30-15:00	<p>세션 1: 한국의 해양 에너지 자원과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b>History and Development of the Korea-Japan JDA &amp; Future Marine Energy</b></p> <p>좌장 : 현대송 독도연구센터장 (KMI)</p> <p>- 발표 1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의 내용 분석 (최지현, KMI 전문연구원)  <b>Korea-Japan Joint Development Agreement and its implementation (Choi Jee-hyun, Korea Maritime Institute)</b></p> <p>- 발표 2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에 따른 탐사 연혁 (임보성, 석유공사 과장)  <b>Exploration and Production in JDZ" Lim Bo-Sung (Lim Bo-sung,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b></p> <p>- 발표 3 : 한국의 대륙붕 탐사 현황과 미래 (정희수, KIOST)  <b>Present and Future of Continental Shelf Exploration in Kore (Jung Hoi-soo,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b></p> <p>토론 (1인)          - 임종세 교수 (한국해양대)  <b>Lim Jong-se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b></p>
	15:00-15:20	휴식 시간
	15:20-17:20	<p>세션 2: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법적 검토  <b>Legal View of the Kore-Japan JDA from scholars and other cases</b></p> <p>좌장 : Kim Doo-young (Visiting Research Fellow, Korea Maritime Institute)</p> <p>- 발표 1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관한 일본의 시선 (카네하라 아츠코, 일본 소피아대)  <b>Korea-Japan JDA: Japanese Perspective (Kanehara</b></p>

		<p>Atsuko, Sophia Univ.)</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 2 : 대륙붕 공동개발협정과 일방주의 (데이빗 옹, 영국 노팅엄 트렌트 대학교) <b>Joint Development Arrangement and Unilateralism</b> (David M. Ong, <b>Nottingham Trent Univ.</b>)</li> <li>- 발표 3 : 호주-동티모르 해양 경계획정 조정 사건 <b>Australia and East Timor Conciliation</b> (Stuart Kaye, <b>University of Wollongong</b>)</li> <li>- 발표 4 : 해양 자원 문제와 해양 경계획정 문제 <b>Marine Mineral Resources and Maritime Delimitation</b> (Robert G. Volterra, <i>law firm</i> Volterra Fietta)</li> </ul> <p>토론 (2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기범 박사 (아산정책연구원) <b>Lee Ki-beom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b></li> <li>- 김현정 교수 (연세대학교) <b>Kim Hyun-jung (Yonsei Univ.)</b></li> </ul>
--	--	---